

요나는 자신이 도망쳤기  
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 
보내셨다는 걸 알았어요.  
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 
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 
것이라고 말했어요.



하나님은 요나를 구하러 고래를 보내셨어요. 요나는 고래의 배 속에 사흘  
동안 있었어요. 요나는 기도했어요. 그는 회개했고, 하나님을 따르기로  
결심했어요. 하나님은 고래에게 요나를 육지 위에 토해 내라고 하셨어요.